

##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박 병 섭\*\*

### 〈목 차〉

1. 머리말
2.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
3. 마쓰시마 도해면허
4. 마쓰시마에서의 어업
5. 에도막부의 마쓰시마 조사와 도해 금지령
6. 맺음말

### 〈국문초록〉

17세기 해금 정책으로 인해 무인도로 된 울릉도·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침입해 어업을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연구를 바탕으로 에도막부(江戸幕府)가 다케시마(竹島)=울릉도 도해면허처럼 마쓰시마(松島)=독도 도해면허도 발행하고 마쓰시마를 경영했기 때문에 일본은 마쓰시마에 대한 영유권을 17세기에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17세기 일본인의 마쓰시마 어업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본격적으로 검증한 논문은 거의 볼 수 없다. 본고는 이런 일본인의 마쓰시마 어업이나 도해면허를 분석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생각한다.

마쓰시마에서 어업이 시작된 것은 다케시마(竹島)=울릉도에서의 어업이 시작된 지 약 30년 후다. 이렇게 뒤늦게 마쓰시마 어업이 시작된 것은 많은 장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마쓰시마에는 80석짜리 정도의 작은 배로 갈 필요가 있었다. 다음에 마쓰시마에는 장작이나 식수가 거의 없으니 생활하기가 어려운데다가 강치에서 기름을 만드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기름의 수확이 급감했기 때문에 어민

\* 본고는 朴炳涉,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호(2012)를 대폭 개편해 번역함

\*\* 일본 獨島=竹島문제연구넷

들은 부득이 1650년대에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강치 사냥은 악조건 때문에 “조금씩”밖에 못했다. 따라서 다케시마 도해가 없으면 마쓰시마 어업은 경제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다.

가와카미 겐조는 어민들은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도중에 먼저 마쓰시마에 들러서 어업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도해 기록을 분석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케시마로 왕복하는 도중에서의 마쓰시마 어업은 없었다. 마쓰시마 어업은 다케시마를 기지로 삼아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근처의 작은 섬” 등 다케시마의 속도로 인식됐다.

종래 다케시마로의 도해는 200석짜리의 큰 배 2척으로 갔는데,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려면 배 2척 중 1척을 80석짜리 정도의 작은 배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가져올 수 있는 어획물의 적재량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당초 오야(大谷)는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을 제외한 무라카와(村川)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무라카와만이 마쓰시마 어업을 시작한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무라카와는 오야·무라카와 양가를 돌보던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를 움직여 오야를 설득했다. 드디어 오야도 수입의 감소를 각오해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사정을 아베는 그때까지 전복을 현상하고 있었던 로쥬(老中)에 알리고 양해를 얻었다. 이것이 “로쥬의 내의(內意)”인데,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이를 바탕으로 마쓰시마 도해면허가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가 주장하듯이 “로쥬의 내의”는 결코 도해면허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민들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며, 마쓰시마 도해면허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어업은 조선인도 울릉도에 출어하게 되자 전기를 맞았다. 다케시마(울릉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조·일 간에 울릉도쟁계(다케시마 일건)가 시작됐다. 논쟁이 평행선이 됐다는 쓰시마번의 보고를 받아 에도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조사를 시작했다. 그 결과 다케시마는 조선 영토이며,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도 일본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에도막부는 알게 됐다. 따라서 1696년에 에도막부가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을 때에 일본 땅이 아닌 마쓰시마도 도해가 금지됐던 것이다. 그 후는 약 200년 동안 마쓰시마에서의 일본인 어업은 기록에 없으며 마쓰시마에 상륙했다는 기록도 없다. 따라서 17세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주제어: 마쓰시마 도해면허, 강치 잡이, 오야·무라카와, 울릉도쟁계, 다케시마 일건,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 1. 머리말

17세기 울릉도·독도는 정부의 해금 정책으로 인해 무인도였다. 이 틈에 일본인 어민들이 다케시마(竹島)=울릉도에 침입해 어로를 시작해, 이윽고 마쓰시마(松島)=독도에서도 강치 잡이를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유력한 근거로 삼았다. 즉 일본의무성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10 포인트』로 약칭)는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독도, 주)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라고 적었다. 또한 일찍이 「일본정부견해 3」<sup>1)</sup>은 외무성 사무관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섬(독도·저자 주)에 대해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가 앞의 울릉도처럼 막부(幕府)에서 도해면허를 받았던 것은 메이레키(明曆) 2년(1656년) 혹은 그 이전의 일이었다”라고 쓰고 ‘마쓰시마 도해면허’를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의 증거로 예시했다. 이처럼 17세기 일본인의 독도에서의 어업은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마쓰시마 도해면허에 대한 논의는 있어도 가와카미가 주장한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을 본격적으로 분석, 검증한 논문은 거의 볼 수 없다.

본고는 이러한 독도 어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때의 일본인 어업을 가지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할 수 있을지 검증한다. 또한 ‘마쓰시마 도해면허’에 관해 선행 연구에서 미해결로 남아 있는 문제를 검토한다.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설은 가와카미 겐조가 주장한 것인데, 이에 호리 가즈오(堀和生)가 찬성해 “양가는 다케시마=울릉도로 건너갈 도중에 있는 마쓰시마=독도에서도 약간 어업을

1) 「竹島に関する1954年9月25日付け大韓民国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国政府の見解」 1956. 9.20.

한 일도 있는 듯하며, 1661년경에 새로 마쓰시마로의 '도해면허'도 받았다"고 주장했다.<sup>2)</sup> 그러나 최근에는 '마쓰시마 도해면허'에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다.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는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다케시마'의 경우와 같은 도해면허의 공문서는 남아 있지 않다(아마 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sup>3)</sup> 또한 이케우치에 따르면 가와카미가 도해면허의 근거로 삼은 '로쥬(老中)<sup>4)</sup>의 내의' 등은 도해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라카와가 단독으로 선행하고 있었던 마쓰시마 도해 사업을 쇄신하고 오야·무라카와 양 가문에 의한 도해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결코 새로운 도해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sup>5)</sup> 그러나 '사업의 조정'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은 없으며, 규명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본고에서는 이 '사업의 조정'이란 어떤 것인지 검토한다.

## 2.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

돗토리 번 요나고(鳥取藩米子)의 상인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돗토리 번을 통해 에도 막부로부터 한 번만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면허를 얻어 1625년경부터 매년 교대로 다케시마로 가서 어업을 했다. 일본인의 제1차 울릉도 침입이다. 다케시마로 가는 도중에 마쓰시마(독도)가 위치하고 있으니, 그들은 이른 시기에 마쓰시마에 강치가 많이 살고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다. 마쓰시마로의 도항 및 어업에 대해 가와카미 겐조는 그들이 "4월 상순에 순풍을 기다려 마쓰시마로 향하고, 거기서 어업을 한 다음 다케시

마로 건너갔다." 라고 적었다.<sup>6)</sup> 이는 1828년에 성립된 오카지마 마사요시(岡島正義) 『죽도고(竹島考)』를 인용한 것 같다. 이 책은 "4월 상순경 순풍과 조류를 기다려 돛을 달고 마쓰시마라는 작은 섬에 배를 정박시키고 어업을 시작"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에도시대에 대대로 돛토리번 태수를 지낸 이케다(池田) 가문이 소장한 '다케시마 관계 문서' 및 호키시(伯耆史) 등을 바탕으로 편집한 『돗토리번사(鳥取藩史)』는 "요나고에서 다케시마로 가려면 일단 운슈 구모즈(雲州雲津)로 가고, 거기에서 오키국 도고 후쿠우라(隱岐國島後福浦)로 건너가고 후쿠우라에서 다케시마로 직항하는 것이 예사다." 라고 기록했으며,<sup>7)</sup> 마쓰시마에 들르지 않았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 어민들은 어업을 먼저 마쓰시마에서 했는지, 혹은 다케시마에서 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민들이 다케시마로 왕복하는 뱃길 도중에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면, 마쓰시마 어업은 다케시마를 기지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된다. 이는 마쓰시마가 다케시마 부속의 섬이라고 생각됐는지의 여부의 관건이 될 중요한 문제다. 이 관점에서 다케시마로 왕복하는 뱃길 도중에 마쓰시마에 들러서 어업을 했는지 살펴본다.

〈표 1〉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노정과 일정

	1637년	1666년	1692년	1693년
	간에이 14년	간분 6년	겐로쿠 5년	겐로쿠 6년
	인조 15년	현종 7년	숙종 18년	숙종 19년
도해자	무라카와	오야	무라카와	오야
도해선의 크기, 수	1?	13단+80석? 왕2, 복3	200석+80석? 2?	200석+80석? 2?
인원 수	30	약 50	21	21
요나고 출발		2월3일	2월11일	2월15일

2) 堀和生, 「一九〇五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24號, 1987, 101쪽.  
3) 塚本孝, 「竹島領有權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244號, 1994, 1쪽. 또한, 第2版(1996)、第3版(2011)도 같음.  
4) 에도막부 최고의 직명, 4.5명이 취임한다.  
5) 池内敏, 「竹島渡海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1999, 38쪽;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47쪽.

6)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85쪽.  
7) 鳥取県, 『鳥取藩史』6卷, 鳥取県立鳥取図書館, 1971.

구모즈			기항?	2/17-3/2
오키		2/13-4/6	2/28-3/24	3/2-4/16
울릉도 도착(양력)	윤3월 9일 (5월 3일)	4월 8일 (5월 11일)	3월 26일 (5월 11일)	4월 17일 (5월 21일)
선착장			이가시마	도센가사키
울릉도 출발		7월3일	3월27일	4월18일
표착지	울산 방어진 6월 29일	장빈(1척) 7월 5일	무	무
귀로	쓰시마(對馬島)	쓰시마(10/6) 오사카(大坂) (익년 2/27)	하마다(4/1) 구모즈(4/4) 요나고(4/5)	후쿠우라(4/20) 나가하마(4/26) 요나고(4/27)
출전	『本邦朝鮮往復書』, 『伯耆志』	『竹島考』	『鳥取県郷土史』, 『鳥取藩史』, 『竹島考』	『鳥取藩史』, 『因府歷年大雜集』, 竹島考』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도해 일정은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1637년은 알 수 없으나, 1666년 및 1692년의 경우, 오키를 출발해 2일 후, 1693년에는 다음 날, 모두 양력 5월에 다케시마로 도착했다. 다케시마까지의 소요 일수는 『인슈 시청 합기(隱州視聽合紀)』에 의하면 오키에서 마쓰시마까지 1일 반, 마쓰시마에서 다케시마까지 1일, 합쳐서 2-3일 걸린다. 따라서 <표 1>에서 일정이 불명한 1637년을 제외하면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다케시마로 가는 도중에 마쓰시마에서는 어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며, 가와카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다케시마에서 돌아올 때인데, <표 1>에서 조난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던 해는 1692년과 1693년이다. 1693년의 경우 오야는 울릉도를 4월 18일에 출발하고 2일 후에 오키 후쿠우라로 도착했으니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

다. 이때는 오키 출신의 선원과 어부를 후쿠우라 등에서 내려서 운슈 나가하마(雲州長濱)로 가는데 6일 필요했다. 1692년의 경우, 무라카와는 3월 27일에 울릉도를 출항해 4일 후인 4월 1일에 하마다로 도착했다. 이 때에 울릉도에서 오키까지 가는데 2~3일, 오키에서 오키 출신의 선원과 어부를 내리는데 며칠 필요하고, 오키에서 하마다로 가는 데 1일 필요하니, 울릉도에서 하마다까지 적어도 3-4일 걸린다. 따라서 마쓰시마에서는 어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에 무라카와는 다케시마에서 수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 주목된다. 다음에 1694년에는 배가 거센 바람을 만나 도중에서 돌아왔으니 어업은 없었다.<sup>8)</sup> 1695년에는 “마쓰시마에서 전복을 조금 따다.”고 기록됐다.<sup>9)</sup> 이는 1692년부터 1694년까지 3년 연속해서 다케시마·마쓰시마에서 어로가 전혀 없었으며, 게다가 이 해도 조선인 때문에 다케시마에서 어로를 못했으니, 비록 소량의 전복이라도 아쉬워서 마쓰시마에서 전복을 딴 듯하다. 이때에 강치 사냥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마 강치를 잡아도 강치 기름을 얻는 데 필요한 장작이나 물 등의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해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다케시마로 왕복하는 도중에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은 다케시마를 기지로 삼아 행해졌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끊어지면 마쓰시마로의 도향도 자연히 끊어지게 된다.

다음에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이 시작한 시기를 생각한다.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시작된 것은 1625년경인데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이 시작된 것은 이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였다. 오야의 경우는 1660년에 아베 곤파치로 마사시게(阿倍(部)權八郎政重)로부터 오야 규에몬(大屋九右衛門)에게 보낸 9월 4일자 서함에 “내년 당신의 배가 다케시마로 도해하시고 마쓰시마에도 처음으로 건너가신다는 뜻을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와

8) 『控帳』, 元祿7(1694)年5月9日.

9) 『竹島之書附』, 「亥十二月廿四日竹嶋之御尋書之御返答書」.

상의하셨다니 잘 된 일입니다.”<sup>10)</sup> 라고 기록된 것이나, 혹은 아베 곤파치로 마사시게의 가신인 가메야마 쇼자에몬(龜山庄左衛門)으로부터 오야 규에몬에게 보낸 9월 5일자서함에 “내년부터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로 당신의 배가 건너가시게 됐다는 것에 대해 일전에 시로고로(四郎五郎)가 로주의 양해를 얻으셨습니다.”<sup>11)</sup> 라고 기록되고 있으니 오야의 마쓰시마 도항은 1661년이 처음이다.

다음은 무라카와인데, 이케우치는 1658년에 가메야마 쇼자에몬으로부터 오야 미치요시(大谷道喜)에게 보낸 서함(후술의 9월 8일자서함) 등을 근거로 1657년에 마쓰시마 도해가 시도됐다고 주장했다.<sup>12)</sup> 단 이 해는 “배가 도착하지 않아 굉장한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sup>13)</sup> 무라카와는 그들의 다음 순번인 1659년부터 마쓰시마에서 강치 사냥을 시작한 것 같다. 이는 다케시마 도해가 시작된 지 약 34년 후의 일이다. 가와카미는 이는 “거의 납득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이다.” 라고 적었는데,<sup>14)</sup> 가와카미의 의문은 당연하다. 다케시마보다 훨씬 가까운 마쓰시마에 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음을 알면서 왜 강치 잡이를 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를 다음에 생각한다.

실은 마쓰시마 어업에는 장애가 많았다. 먼저 배의 착안이 쉽지 않다. 바다는 조용한 날이 적으며, 섬 주변에는 암초가 많으니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 또한 날씨가 악화되면 배를 해안에 끌어올려야 하는데 큰 배는 어려워, 80석짜리 이하의 작은 배로 갈 필요가 있다. 다음에 마쓰시마에는 장작이나 식수가 거의 없으니 생활하기가 어려운데다가 강치에서 기름을 만드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배의 정박장은 동도 서쪽의 몽돌해안이

었다. 거기는 「고타니 이헤(小谷伊兵衛)로부터 제출된 다케시마의 그림지도」<sup>15)</sup>에 ‘배 정박 장소’라고 쓰고 있으며, 오두막의 그림까지 그려졌다. 거기는 두 섬 사이에 있으니 비교적 바다가 조용하지만 그래도 조류가 급하며 착안은 쉽지 않다. 후세에 독도로 이주한 최종덕은 서도와 동도 사이의 수로에 대해 “지척이 천리라는 말이 있지요. 두 섬 사이가 불과 50m지만 조류가 급하고 파도가 세어 한 달에 한두 번 건너가기가 힘들어요”<sup>16)</sup> 라고 말할 정도다. 이런 애로 때문에 다케시마에서 강치 사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아무리 강치가 많아도 어로 조건이 나쁜 마쓰시마에서 아예 강치 사냥을 할 필요가 없다. 마쓰시마에서 강치 사냥을 하게 된 것은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사냥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에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배의 수를 살펴본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마쓰시마로 파견된 ‘작은 배’의 의미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1637년의 경우, <표 1>에서 표류한 무라카와 배 1척을 조선에서 돌려 보내 온 것이 『본방 조선 왕복서(本邦朝鮮往復書)』에 기록됐는데 출발한 때의 배의 수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 표류에 관해 『인슈 시칭 합기』 4권 “다쿠히산 엔기(燒火山緣起)”는 무라카와의 배가 거센 바람을 만났는데 배 안의 장로가 다쿠히산을 빌었더니 그 영험으로 입항할 수 있었다고 기록됐다.<sup>17)</sup> 이 기사에는 따로 조난한 배의 기술이 없으니, 아마 큰 배 1척만이 출어한 것 같다. 다음 1666년의 경우에는 『다케시마고(竹島考)』에 2척이 갔다고 기록됐다. 그러나 울릉도에서 1척이 더 건조됐다. 1692년의 경우는 도해에서 32년 후인 1724년에 돛토리 번이 막부에게 제출한 각서에 “겐로쿠 임신년 …(생략) 200석 짜리 배 1척을 보냈습니다. …(생략) 다케시마 도해는 전에는 배 2척을 보냈습니다”고 기록됐으며,<sup>18)</sup> 다음 해

10) 川上健三, 前掲書, 73쪽에서 재인용.

11) 川上健三, 前掲書, 74쪽에서 재인용.

12)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256쪽.

13) 大谷家文書, 万治元(1658)年9月7日, 龜山庄左衛門から大谷道喜(勝宗)への「村川市兵衛方へ遣す書狀之寫」.

14) 川上健三, 前掲書, 79쪽.

15) 「小谷伊兵衛より差出候竹島之繪圖」, 鳥取博物館所藏.

16) <중앙일보> 1983.7.30, 「독도 ‘로빈슨 크루소」.

17) 원문은 “伯耆國之大大賈村川井氏 自官賜朱印 致大舶於磯竹嶋 遇颶風落高勾麗 日暮不知津 船叟念燒火山 忽有漁火 得入其津”.

18) 『竹嶋之書附』, 「覺」(「竹嶋の儀 御尋の書附壹通」への回答).

1693년과 1694년도 마찬가지로 1척이라고 기록됐다. 또한 『다케시마고』에서도 “후년에 이르러 반으로 줄이고 1척에 25명 정도를 보내기로 됐다”라고 썼다. 그러나 1695년에 돗토리 번이 오야·무라카와 양가를 조사해 막부에 보고한 문서에는 “배의 수는 대·소 2척이 있습니다”라고 적었다.<sup>19)</sup> 이 보고는 도해 사업이 진행 중의 기록이니 신뢰성이 아주 높다. 앞에 쓴 것처럼 마쓰시마로 가려면 작은 배가 반드시 필요하니, 역시 배는 대·소 2척이 파견됐을 것이다. 1693년의 경우도 『鳥取藩史』에 의하면 도사공은 2명이며 이름은 구로베(黒兵衛)와 히라베(平兵衛)라고 기록됐으니, 역시 도해한 배는 2척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鳥取藩史』에 “무라카와·오야의 배 대·소 2척이 해마다 다케시마로 도항해 어업에 종사했다”고 기록했다. 이런 기록 등을 고려하면 도해한 배는 당초는 큰 배 1척이며, 이윽고 큰 배 2척으로 되고, 마쓰시마에서의 강치 사냥이 시작되자 큰 배 1척과 작은 배 1척, 합계 2척이 파견됐다고 생각된다. 큰 배는 크기가 200석(30톤), 작은 배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크기가 70-80석이니 작은 배는 큰 배와 똑같이 셀 수 없으며, 사료에서 때로는 무시한 것 같다.

### 3. 마쓰시마 도해면허

어민들이 마쓰시마(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다케시마(울릉도)에서의 강치 사냥이 제대로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돗토리 성하의 상인 이시이 소에쓰(石井宗悦)가 오야 미치요시(大谷道喜)에 보낸 서장에 “마쓰시마로 7, 80석짜리 작은 배를 보내고 총으로 강치를 쏘면 작은 섬이니 다케시마로 강치가 도망가서 다케시마에서의 수확이 늘어난다고 이치베가 말하고 있습니다”<sup>20)</sup>라는 기록이 보인다. 이시이는 돗토리 성

하에 있어서 초기 상인 중의 한 사람이며 해운업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이시이 서장의 시기는 다무라 다쓰야(田村達也)의 고중에 따르면 좁게는 1652-54년, 넓게는 1640년대 후반부터 50년경이라 한다.<sup>21)</sup> 이시이 서장의 취지는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작은 배를 강치가 많이 서식하는 마쓰시마로 보내고, 총을 쏘고 강치를 다케시마로 쫓아 다케시마에서의 수확을 늘리는데 있다. 이 발안자는 무라카와 이치베다. 이런 생각이 나온 것은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수가 줄었던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마쓰시마에서의 강치 사냥이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마쓰시마에서의 강치 사냥이 쉽다면 일부러 강치를 다케시마로 쫓아낼 필요가 없다.

무라카와 이치베는 이시이가 제안한 생각을 실행하려고 앞에 쓴 것처럼 1657년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시도했지만 배가 파손되어 큰 손해를 보았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라카와는 도해 순번을 바꿀 것을 아베 시로고로 및 그 수하인 가메야마 쇼자에몬에게 부탁하고, 더불어 오야를 마쓰시마 도해로 끌어들이려고 애썼다. 「9월 8일자 가메야마 서장」(1659년, 万治2년)은 이렇게 적었다.

「9월 8일자 가메야마 서장」

무라카와 이치베 쪽에 보낼 서장의 사본<sup>22)</sup>

(도중 생략) 그런데, (a)다케시마 근처의 작은 섬에 작은 배로 도해한다는 것에 관해 지난해에 당신(무라카와, 이하 같음, 주)이 말씀하신 것은, 오야 규에몬 측은 동심이 없는 동안은 당신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때 (b)우리들이 말한 것은 당분간은 동심이 없다 해도, 틀림없이 (작은 섬에서, 주) 별 일이 있으며 오야도 건너가고 싶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말로는 동심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은 당신만 건너가야 한다고 말해 두었습니다. (c)이번에 규에몬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이치베에 동의해 작은 배로 도해하고

20) 『新修鳥取市史』2卷, 鳥取市, 1988, 313쪽.

21) 池内敏, 前掲, 『大君外交と「武威」』, 258쪽에서 재인용.

22) 川上健三, 前掲書, 78쪽.

19) 『竹嶋之書付』元禄八年, 三号「亥十二月廿四日竹嶋之御尋書之御返答書, 同廿五日二平馬持參曾我六兵衛二渡ス」.

싶다고 합니다. 저희가 말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d)재작년에 무라카와가 상당히 손해를 보았더니 까 이로 인해 내년도 무라카와의 배를 보내고, (e)오야의 순번은 오는 축·인(丑寅) 두 해부터 오야 측이 건너가고, 그 후는 이전과 같이 두 사람이 순번으로 건너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섬은 초목도 없는 곳으로 따로 볼 일이 없고, 강치의 기름을 얻는 것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f)그러하니 서로 귀찮은 일이 없도록 담합해야 합니다. 삼가 아뢰입니다.

이상과 같이 무라카와 이치베쪽에 보내려고 하니 확인하기 위해 서장의 초안을 보여드립니다. 이상

가메야마 쇼자에몬(도장)

9월 8일

오야 미치요시 귀하

오야는 마쓰시마로 작은 배로 도해해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오야도 동의하게 됐다. 또한, 도해의 순번에 관해 1657년에 무라카와가 상당한 손해를 보았던 것에 배려해, 오야는 양보해 순번을 바꾸는데 동의했다. 앞의 서장을 고려하면 다케시마 도해의 순번은 아래와 같다.

무라카와: 1657년(마쓰시마 도해 실패), 1659년, 1660년, 1663년

오야: 1658년, 1661년(마쓰시마 첫 도해), 1662년

아베 시로고로는 이런 사정, 특히 오야도 드디어 마쓰시마로 도해하게 된 것을 자주 전복을 현상하는 로주에 알려져 양해를 얻었다. 앞에 쓴 가메야마 쇼자에몬으로부터 오야 규에몬에게 보낸 9월 5일자 서장에 보이는 “로주의 내의”다. 아베는 다케시마 도해면허에 서명한 이노우에 가즈에노카미(井上主計頭)와는 친척 관계이므로,<sup>23)</sup> 로주와의 의사소통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서장, 특히 “로주의 내의” 등을 바탕으로 가와카미 겐조는 “마쓰시마에 대해서도 다케시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얻었다는 것은 앞에 쓴 엔포(延寶) 9년의 오야 규에몬 가쓰노부의 청서(주21 참조),<sup>24)</sup> 겐분(元文) 5년<sup>25)</sup> 및 간포(寬保) 원년의 오야 규에몬 가쓰후사(大谷九右衛門勝房)의 문서(주22 및 23참조)<sup>26)</sup> 등에 의해서도 분명하다”<sup>27)</sup>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아래와 같이 이의를 제시했다. 다음 글 중의 ‘사료 7’<sup>28)</sup>은 ‘9월 5일자 가메야마 서장’을 가리킨다.

24) 『竹嶋渡海由來記拔書』(鳥取県立博物館所蔵版)

三代目九右衛門勝信

信代、延寶九年西五月、御巡見様御宿仕、其節竹嶋の様子就御尋、御請書差出寫。

一、大猷院様御代五拾年以前、阿倍四郎五郎様御取持を以、竹嶋拜領仕、其上親共より御目見迄被爲 仰付、難有奉存候事。

一、彼嶋へ年々船渡海鹿魚之油、并に串鮑所務仕事。

一、竹嶋へ隱岐國嶋後福浦より百里余可有御座由、海上之儀に御座候得共、慥には知レ不申事。

一、竹嶋之廻拾里余御座候御事。

一、嚴有院様御代、竹嶋之道筋廿町廻申候小嶋御座候。草木無御座岩山にて御座候。廿五年以前、阿倍四郎五郎様御取持を以、拜領、則船渡海仕候。此小嶋にても、海鹿魚油少宛所務仕候。右之小嶋へ、隱岐國嶋後福浦より海六拾里余も御座候事。

五月十三日

右之通、御請書仕候事

25) 1740(元文5)年 「御公儀江御訴訟之御請」에 관한 일건(一件) 서류 (大谷家文書)에서 발췌.

一、竹嶋江渡海仕候道法之内 隱岐國嶋後福浦より七八十里程渡り候而 松嶋と申小嶋御座候二付 此嶋江渡海仕度旨 台徳院様御代御願申上候處願之通被爲 仰附竹嶋同事二年々渡海仕候 尤再度奉差上候竹嶋渡海之繪圖二書頭候御事

26) 1741(寬保元)年、長崎奉行所への口上書

『竹嶋渡海由來記拔書』에서 발췌.

乍恐口上書を以奉申上候

大猷院様御代、竹嶋之海道にて、又松嶋と申嶋を見出し、御往進奉申上候得は、竹嶋之通支配御預ヶ被爲遊、右兩嶋へ渡海仕來、重々難有仕奉存候。

27) 川上健三, 前掲書, 73쪽.

28) ‘사료 7’은 다음과 같다.

23) 内藤正中, 「元和四年竹嶋渡海免許をめぐる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7號, 1998, 6쪽.

무라카와 단독에 의한 마쓰시마 도해의 기성사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아베 시로고로 생존 중에 로쥬에서 얻었다고 하는 내의(‘사료 7 (b)’)는 마쓰시마 도해의 신규허가일 수는 없다. 또 “이치베 귀하·당신께” 교부한 ‘증서’(‘사료 7 (c)’)도 마찬가지로 마쓰시마 도해의 신규 허가가 될 수 없다. 이들은 “이치베 귀하·당신” 양자에게 교부된 것이니, 무라카와 단독으로 기성 사실화된 마쓰시마 도해를 추인해 면허를 주는 것도 아니다. 선년 건네준 ‘증문(證文)’ 대로 “배를 건네주셔야 함”(‘사료 7 (d)’)이라고 하나, ‘내의’든 ‘증서’든 간에 아마 무라카와가 선행해 진행하고 있었던 단독에서의 마쓰시마 도해를 쇄신해, 오야·무라카와 쌍방에 의한 도해사업으로 조정할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sup>29)</sup>

이케우치는 로쥬의 ‘내의’나 가메야마 쇼자에몬이 말하는 ‘증문’은 마쓰시마 도해사업을 무라카와 단독에서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사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추정했다. 이케우치는 ‘양가의 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다.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확실한 것은 마쓰시마 도해 사업이 새로운 이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새로운 이권이라면 오야가 무라카와에 찬성 못할 이유가 없으며, 무라카와도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이미 시작했으니 오야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아무 지장이 없었다. 게다가 마쓰시마의 위치는 “다케시마 도해 도중의 마쓰시마”, “다케시마 근처의 작은 섬”,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 등으로 표현된 바와 같이 다케시마의 속도로 생각되고 있었으니,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김에 마쓰시마로 도해하는 것은 막부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카와가 아베 시로고로, 가메야마 쇼자에몬 등의 힘을 빌리고 오

야를 마쓰시마 어업에 끌어들이려고 노력한 이유는 무라카와만이 마쓰시마 어업을 시작한다면 손해를 본다는 것과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오야에게 부담이 되니 설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원래 마쓰시마는 어업에 마땅치 않는 섬이니, 한 번의 출어기간은 짧고 얼마나 강치가 많아도 어획량은 많이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도항은 작은 배가 아니면 안 된다. 종래 도해하던 큰 배 2척 중 1척을 작은 배로 바꾼다면 적재량이 줄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이 크다. 예를 들면 200석짜리 배를 80석짜리 배로 바꾼다면 전체 적재량은 400석에서 280석으로 감소하니 3할이나 준다. 이런 사정 때문에 오야는 처음에는 마쓰시마 어업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케시마에서 강치 사냥이 여의치 않으면 부득이 마쓰시마에서도 사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라카와는 수입의 감소를 각오하고 마쓰시마 어업을 시작했는데, 단독으로 마쓰시마 어업을 계속하면 손해도 계속된다. 이 때문에 오야를 마쓰시마 어업에 끌어들이려고 애썼다. 그러나 오야가 동의하지 않았으니 오야에 영향력을 가진 아베 시로고로에 설득을 부탁했다. 드디어 이에 성공해 오야도 부득이 강치 잡이를 시작했다. 이런 결과를 앞에 쓴 것처럼 아베가 로쥬에 보고해 양해를 얻었던 것이다. 결국 “로쥬의 내의”는 이케우치가 주장하듯이 도해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케우치가 ‘마쓰시마 도해 면허’설을 부인한 후는 이 설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외무성도 ‘마쓰시마 도해면허’에 관해 최근에는 아무 말이 없다.

오야가 실제로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한 것은 1681년에 오야 규에몬 가쓰노부(勝信)가 막부 순검사(巡檢使)에 제출한 다음 각서에서 알 수 있다.

권유인(嚴有院)님<sup>30)</sup> 시대에 다케시마로 가는 도중에 주회 20町(2.2km) 정도의 작은 섬이 있는데 초목도 없는 바위섬이며, 24, 5년 전에

(b) “來年より竹嶋之内松嶋へ貴様船御渡之筈ニ御座候旨、先年四郎五郎御老中様へ得御内意申候”

(c) “渡海之番年相定、市兵衛殿·貴様へ証文相渡し置候間、村川殿と御相談候而、其証文次第二可被成候、市兵衛殿も其証文之通少しも御違背者有之間敷儀と存候”

(c) “先年相渡し候証文二具可有御座候間、今以其通二舟御渡し可被成候”

<sup>29)</sup> 池内敏, 前掲, 『大君外交と「武威」』, 258쪽.

<sup>30)</sup> 에도막부 제4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 1651-1680).

아베 시로고로씨의 알선으로 배령해 배로 도해했습니다. 이 작은 섬에 서도 강치 기름을 조금씩 얻었습니다. 이 작은 섬까지는 오키국 도고 후쿠우라에서 해상 60리(240km)여 있습니다.<sup>31)</sup>

오야는 마쓰시마에서 강치 기름을 조금씩밖에 얻을 수 없었던 것은 이 섬에서의 어로 조건이 나쁘기 때문이다.

#### 4. 마쓰시마에서의 어업

1650년대에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사냥은 성과가 나뉘었던데 1681(天和 덴와 1)년에는 더욱 나뉘었다. 오야 가문 사료에 “과거와 달리 근년은 다케시마에서의 일도 해마다 줄고, 기름 등도 아시다시피 겨우 20-30통 혹은 40-50통도 얻지 못 한다.”<sup>32)</sup> 라고 기록했다. 1637년에 무라카와 배가 조선으로 표착했을 때에는 강치 기름의 양은 『본방 조선 왕복서』에는 386통,<sup>33)</sup> 「후카미 단에몬 고장지사(深見彈右衛門古帳之写)」에는 314통으로 기록됐으므로,<sup>34)</sup> 이에 비해 이즈음은 극심하게 감소했다. 게다가 마쓰시마에서 강치 사냥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의 수량은 1/10로 격감한 것이다. 역시 마쓰시마에서의 강치 사냥은 ‘조금씩’ 밖에 못했던 것이다. 동시에 다케시마의 강치는 멸종의 위기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멸종 경향은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강치 사냥에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강치 잡이가 어렵게 되자 아베 시로고로는 양가에 다케시마 도해 사업을 공동 사업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아베는 오야 규에몬에게 보낸 1681년 8월 2일

자 서함에 다음과 같이 권했다.

근년 다케시마의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무라카와 이치베로부터 듣고, 게다가 마쓰시마로 도해한 배가 파손되고 이치베도 근년에는 두 섬에서의 일이 없어서 난처하다. 이렇다면 두 사람이 논의해, 공동으로 배를 보내고 귀향 후에 손익을 쌍방에서 나누도록 하고, 운운<sup>35)</sup>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아베의 제안에 찬성하고, 1681년 12월에 다케시마 도해를 공동사업으로 하고 손익을 절반으로 나눌 각서를 교환했다.<sup>36)</sup>

마쓰시마에서의 어업 실태인데 오야·무라카와 양가는 1695년의 특수한 예를 제외하면 마쓰시마에서는 전복을 따지 않았으며, 강치 사냥만 했다고 한다. 앞의 '9월 8일자 가메야마 서함'에 "(e) 그 섬(마쓰시마, 주)은 초목도 없는 곳이며 다른 일도 없고 강치 기름을 얻는 일 하나뿐이라고 한다." 라고 기록됐듯이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은 오직 강치 기름을 얻는 것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강치에서 기름을 얻으려면 가죽을 벗기고 기름 살을 삶아야 하는데 마쓰시마에서는 문제가 있다. 마쓰시마는 이름과 달리 소나무는커녕 나무가 전혀 없으니 강치의 기름 살을 삶기 위한 장작은 이 섬에서는 구할 수 없다. 따라서 강치의 가공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생각된다.

35) 池内敏, 前掲, 『大君外交と「武威」』, 262쪽에서 재인용.

36) 전계 『大日本史料』第12編之29 「大谷氏舊記」, 359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取替シ申一札之事

一、當暮より、竹嶋松嶋自今以後寄合之所務二仕候、然上ハ此儀二付、縦損亡在之候而も、利分在之候而も、兩人割府(符)仕、右之算用少茂無相違可致事、

一、兩嶋歸帆碩所務之品々少ニても無偽明白に可申相事

一、兩嶋仕出之算用、是又互ニ少ニても隱偽申間敷事

右如一札之、子共之代ニ至迄、兩嶋寄合ニ仕候、然上ハ互無延(違)慮致相談、嶋仕出し入目、互疑無之様ニ可仕候、尤損亡又ハ利分在之候節ハ、猶以兩人割(荷)符無相違様ニ整算用可申事、仍予爲後々年之一札如件

天和元年

酉ノ十二月廿三日 村川市兵衛

大屋九右衛門殿

31) 『大日本史料』第12編之29, 「大谷氏舊記」, 東京帝國大學史料編纂所, 1929, 復刻版(1997), 351쪽; 『竹嶋渡海由來記拔書』, 三代目九右衛門勝信.

32) 「大谷氏舊記」一, 東京帝國大學史料編纂所; 池内敏, 前掲書, 262쪽에서 재인용.

33) 『本邦朝鮮往復書』第二册, 棠陰玄召(以酌庵第二番), 中村榮孝, 『日鮮關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 461쪽에서 재인용.

34) 「深見彈右衛門古帳之寫」, 寛永14年7月10日頃, 池内敏, 前掲書, 260쪽에서 재인용.

- (A) 강치를 다케시마로 가져가서 가공한다.  
 (B) 다케시마로부터 장작과 물을 가져와서 마쓰시마에서도 강치를 가공한다.

강치 사냥은 주로 여름에 행해졌으니, 강치의 부패를 생각하면 가공은 (B)와 같이 마쓰시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하여간 강치의 가공이 다케시마 혹은 마쓰시마, 어느 곳에서 이루어져도 마쓰시마에서의 강치 사냥은 다케시마를 기지로 하는 것으로 비로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에서 약 90km 떨어져 있어도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 “다케시마 근처의 마쓰시마”라고 기록됐다. 이처럼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부속의 섬이라는 인식이 정착한 것이다. 본래 마쓰시마가 바위 섬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섬을 의미하는 마쓰시마라고 불린 것은 대나무 섬을 뜻하는 다케시마와 짝을 이룬다는 인식에서 운수 좋은 숙어 ‘송죽’에 연관돼 명명된 것이다. 또한, 문헌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를 한 쌍으로 다룬 예는 『인슈 시청 합기』에서 ‘이 두 섬’이라고 표현된 것을 비롯해, 에도시대의 대표적인 지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개정 일본 여지노정 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다케시마·마쓰시마를 한 쌍으로 하는 인식이 메이지(明治)시대에 마쓰시마의 소속에 큰 영향을 준 것이다.

## 5. 에도막부의 마쓰시마 조사와 도해 금지령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다케시마·마쓰시마에서의 어업에 일대 전환기가 왔다. 1692년 봄에 무라카와가 다케시마(울릉도)로 갔더니, 앞에 쓴 것처럼 조선인이 이미 어업을 시작하고 있어서 무라카와는 어업을 할 수 없었다. 조선인의 어업은 이 해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있었다. 이런 사태에

일본 어민들 및 돛토리번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다.<sup>37)</sup>

1692년

다케시마(울릉도)에서 조선인 약 20명이 많은 전복을 따고 있었다. 일본 어민들은 조선인들에 다케시마는 자기들의 땅이니 빨리 귀국하도록 말하고, 조선인이 출어한 증거로 그들의 망경, 된장 등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사건을 돛토리번이 에도막부에 보고했더니 로주는 조선인이 그 섬에서 돌아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1693년

다케시마에서 조선인 42명이 전복과 미역을 많이 채취하고 있었으니, 일본 어민들은 조선인 2명을 호키에 연행했다. 돛토리번은 에도막부에 조선인의 출어 금지를 요청하고, 조선인들을 나가사키, 쓰시마번을 통해 송환했다.

1694년

일본 어민들이 다케시마로 향했으나 거센 바람을 만나 도중에서 돌아와서 돛토리번에 보고했다.

1695년

일본 어민들이 다케시마로 도항했으나 조선인이 있었기 때문에 어로를 포기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마쓰시마(독도)에서 전복을 조금 따다. 돛토리번은 이 사실을 8월 12일에 에도막부에 보고했다.

1693년에 연행한 조선인은 안용복과 박어둔이다. 이들을 조선에 송환한 것을 계기로 쓰시마번과 조선 사이에 울릉도쟁계, 쓰시마 번이 말하는 ‘다케시마 일건(竹島一件)’이 시작됐다. 쓰시마 번과 조선과의 교섭은 난항해 2년이 지나도 해결의 단서가 보이지 않고 교착상태로 빠졌다. 쓰시마번 태수의 후견인인 소 요시자네(宗義眞)는 1695년에 에도로 가서 막부와 해결책을 상의했다. 막부는 조선이 주장하듯이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37) 鳥取県, 전계서, 468-471쪽.

같은 섬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케시마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12월 11일에 쓰시마번에 다케시마 방향에 따로 섬이 있는냐고 질문했다. 쓰시마번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으며, 거기에도 건너가고 어업을 했다는 것이 아래 것들의 풍설입니다. 그 쪽 사람에게 물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다.<sup>38)</sup> ‘그 쪽 사람’이란 돗토리번을 말한다. 이 말대로 에도막부는 12월 24일에 돗토리번에 대해 다케시마 외에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음날 “다케시마·마쓰시마 기타 양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sup>39)</sup> 양국이란 이나바국(因幡國)과 호키국, 즉 돗토리번을 말하는데, 돗토리번은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자기 영토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막부는 이 대답을 바탕으로 1696년 1월 9일에 다케시마 도해 금지의 뜻을 쓰시마번에 전했다. 아울러 막부는 돗토리번 대답에 등장한 마쓰시마에 관심을 가지고 추가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돗토리번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1696년 1월 25일에 제출했다. 먼저 다케시마 도해 사업인데, 다케시마로 도해한 자들은 호키국 요나고(米子)의 백성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어민들이며, 그들에게 고용된 사냥꾼들이 이즈모국(出雲國), 오키국에서 같이 갔다. 다음은 마쓰시마에 관한 정보인데,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마쓰시마에 간 것은 다케시마로 도해 가는 도중에 있으니 들려서 사냥을 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도해 노정은 요나고에서 이즈모국 구모즈까지 10리(40km)정도, 거기에서 오키국 다쿠히산까지 23리 정도, 거기에서 오키국 후쿠우라까지 7리 정도, 거기에서 마쓰시마까지 80리 정도, 거기에서 다케시마까지 40리 정도이며 호키국으로부터 마쓰시마까지 120리 정도 있다고 보고했다.<sup>40)</sup>

돗토리번은 마쓰시마가 “어느 나라에도 소속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이 ‘어느 나라’를 가와카미는 “이나바국과 호키국” 즉 돗토리번으로 해석했다.<sup>41)</sup> 이 경우 마쓰시마가 돗토리번의 영지가 아니라도 일본의 다른 나라(번)에 속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쓰카모토 다카시는 “듣고 있습니다”라는 단어에 주목해, 돗토리번이 자기 영토의 소속에 관해 “듣고 있습니다”라고 전문한 것처럼 막부에 대답할 리가 없으니 “어느 나라”는 ‘일본의 어느 나라’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sup>42)</sup> 박병섭도 이를 지지했다.<sup>43)</sup> 즉 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보았다.

돗토리번의 회답을 바탕으로 막부는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고, 당초의 막부의 의도와 달리 일본인의 다케시마로의 출어를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1696년 1월 28일에 막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로슈들이 연서한 봉서(奉書)<sup>44)</sup>의 형식으로 돗토리번에 전했다. 단 이 속에 마쓰시

## 覺

一 伯耆國米子より出雲國雲津迄道程拾里程

一 出雲國雲津より隱岐國焼火山迄道程式拾三里程

一 隱岐國焼火山より同國福浦迄七里

一 福浦より松島江八〇里程

一 松島より竹島江四〇里程

以上

子 正月二十五日

別紙

一 松島江伯耆國より海路百式拾里程御座候事

一 松島より朝鮮江は八、九十里程も御座候様及承候事

一 松島は何れ之國江附屬島ニても無御座候由承候事

一 松島江獵參候儀、竹島江渡海之道筋ニて御座候故、立寄獵仕候。他領より獵參候儀は不承候事。尤出雲國隱岐國之者は米子之者と同船ニて參候事。

以上

正月廿五日

41) 川上健三, 전계서, 85쪽.

42) 塚本孝, 전계 「竹島關係 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図」, 87쪽.

43) 内藤正中·朴炳涉, 전계서, 35쪽.

44) 도쿠가와(徳川)장군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38) 『竹島紀事』元祿8年10月.

39) 『竹島之書附』원문은 “竹島松島其外両国江付属之島無御座候事”.

40) 『竹島之書附』「小谷伊兵衛差出候竹島の書附」. 비슷한 각서(1월 23일자)가 『磯竹島覚書』에 기록되고 있다. 『竹島之書附』원문은 다음과 같다.

마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관해 데라사와 겐이치(寺澤元一)<sup>45)</sup> 및 일본외무성 『10 포인트』는 다케시마일건의 결과 “다케시마(독도·필자 주) 도향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생각했음은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의문이다. 막부가 다케시마 도해를 금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돗토리번이 막부에게 다케시마·마쓰시마는 돗토리번의 영지도 아니고 일본 어느 나라에도 부속되지 않다고 하는 회답이었다. 또한 쓰시마번은 앞에 쓴 것처럼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근처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다케시마를 조선 영토라고 인식한 막부는 그 근처에 있고, 일본 땅도 아닌 마쓰시마도 당연히 조선 땅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일본 땅이 아닌 곳에 일본인은 갈 수 없으니,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실질적으로 금지된 것이다. 또한, 그 후는 약 200년 동안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은 기록에 없었을뿐더러 마쓰시마에 상륙한 기록도 없다. 마쓰시마 단독의 어업은 경제적으로도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17세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한편, 울릉도로의 강치어업은 그 후도 회복되지 않았다. 1882년 5월에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이 울릉도를 배로 일주해 관찰했더니, 강치가 군집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강치는 수 마리밖에 볼 수 없었다.<sup>46)</sup> 그러나 독도에는 많은 강치가 있었으니 울릉도의 강치만이 사라졌던 것이다. 일단 파괴된 강치의 생태계는 자연히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 6. 맺음말

17세기 일본인의 마쓰시마(독도) 어업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1) 다케시마(울릉도)의 강치는 점점 줄어, 1650년대에 강치 잡이가 여의치 않게 됐다. 이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에 의한 강치 잡이에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부득이 마쓰시마에서 강치 잡이를 시작하게 됐다.

2) 마쓰시마는 다케시마로 도해하는 도중에 있는데, 어민들은 다케시마로 왕복하는 뱃길 도중에는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지 않았다(예외는 1695년). 마쓰시마에서의 어업은 다케시마를 기지로 삼아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근처의 섬”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 등 다케시마의 속도로 인식됐다.

3) 마쓰시마 주변은 암초가 많고 파도가 세기 때문에 큰 배는 접근하기가 어려우며, 게다가 날씨가 악화됐을 때에 해안에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어선은 80석짜리 정도의 작은 배가 사용됐다.

4)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해는 200석짜리 배 2척이 사용됐는데,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시작한 후는 200석짜리 배 1척과 80석짜리 배 1척이 사용됐다. 따라서 가져올 수 있는 어획물이 약 3할 줄었다.

5) 당초 오야는 수입이 줄어들어 마쓰시마에서의 강치 잡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케시마의 강치가 급감한 때문인지, 혹은 그들을 돌보던 아베 시로고로의 요청에 거역할 수 없었던지 마쓰시마에서의 강치 잡이를 시작했다. 아베 시로고로는 이런 사정을 전복을 자주 현상한 로쥬에 알리고 양해를 얻었다. 이것이 “로쥬의 내의”이며, 이는 마쓰시마 도해면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와카미 겐조가 주장한 마쓰시마 도해면허

45) 寺澤元一,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歴史と地理』 628호, 2009, 34쪽.

46)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에 의하면 이규원은 1882년 5월 9일에 울릉도 동북쪽 해안의 굴에서 해구수우(海狗水牛)의 산육처를 확인하고, 10일에 남쪽 현포(현재의 감을계)에서 가지어(可支魚) 한 마리를 확인했다. 이들은 강치라고 생각된다.

는 없었을 것이다.

6) 마쓰시마에는 장작, 식수가 거의 없으므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없으며, 또한 강치에서 기름을 얻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마쓰시마에서의 강치 잡이는 '조금씩' 이루어졌다. 전복 따기는 없었다. 이처럼 마쓰시마는 소득이 적은 섬이니,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없으면 마쓰시마 어업은 경제적으로도 있을 수 없었다. 1696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후 약 200년 동안 마쓰시마에서의 일본인 어업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상륙한 기록도 없다.

7) 울릉도쟁계(다케시마 일건)가 일어나자 에도막부는 1695년에 처음으로 마쓰시마를 알게 됐다. 막부에 대해 쓰시마번은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근처에 있는 섬이라고 보고하고, 돗토리번은 마쓰시마는 돗토리번의 영지가 아니며, 일본 어느 나라(주)에도 소속되지 않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에도막부는 마쓰시마도 다케시마처럼 조선 영토라고 인식했을 것이다. 결국, 17세기에 일본은 마쓰시마(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일본외무성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 【참고문헌】

- 堀和生, 「一九〇五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24號, 1987.
- 內藤正中, 「元和四年竹島渡海免許をめぐる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7號, 1998.
- \_\_\_\_\_, 『竹島=獨島問題入門』, 新幹社, 2008.
- 內藤正中·朴炳涉, 『竹島=獨島論争』, 新幹社, 2007.
- 島根県, 『竹島漁場調査報告』, 島根県立圖書館 소장.
- 朴炳涉, 「江戸時代の竹島=獨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호, 2012.
- 寺澤元一,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歴史と地理』628호, 2009.
-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 日本外務省,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2009.
- 日本政府, 「竹島に関する1954年9月25日付大韓民国政府の見解に対する日本国政府の見解」1956.9.20.
- 鳥取県, 『鳥取藩史』6卷, 鳥取県立鳥取図書館, 1971.
- 中村栄孝, 『日鮮関係史の研究』下, 吉川弘文館, 1969.
- 池内敏, 『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学出版会, 2006.
- \_\_\_\_\_, 「竹島渡海と鳥取藩」, 『鳥取地域史研究』, 1999.
- \_\_\_\_\_,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 塚本孝, 「竹島関係 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図」, 『レファレンス』411호, 国会図書館, 1984.
- \_\_\_\_\_,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244號, 1994.
- 『控帳』.
- 『大日本史料』第12編之29, 東京帝國大學史料編纂所, 1929, 復刻版(1997).
- 『本邦朝鮮往復書』第二冊, 棠陰玄召(以酌庵第二番).
- 『磯竹島覚書』.
- 『竹島紀事』.
- 『竹嶋渡海由來記拔書』(鳥取県立博物館所蔵版).

<日本語要約>

## 17世紀, 日本人の松島(独島)漁業と領有権問題

朴炳涉

17世紀、海禁政策のため無人島になった鬱陵島・独島に日本人漁民が侵入して漁を始めた。日本政府は川上健三の研究をもとに、江戸幕府が竹島(鬱陵島)渡海免許同様に松島(独島)渡海免許も発行して松島を経営したので日本は松島に対する領有権を17世紀に確立したと主張した。このように17世紀の日本人の松島漁業は重要な意味を持つが、これを本格的に検証した論文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本稿はこうした松島での漁業や渡海免許を分析し、独島領有権問題を考える。

松島での漁業が始まったのは竹島での漁業が始まってから約30年後であった。このように遅れて松島での漁が始まったのは多くの障害があったためである。まず、松島へは80石程度の小船で行く必要がある。次に、松島には薪や水がほとんどないので生活が困難であるし、アシカから油を取る作業も容易ではない。しかし、こうした困難があっても竹島でのアシカが激減したので、漁民はやむなく1650年代に松島でアシカ猟を始めた。しかし、猟は悪条件のために「少しずつ」しかおこなえなかった。したがって、竹島への渡海がなければ松島での漁業は経済的にも成り立たない。

川上健三は、漁民は竹島へ渡る途中、まず松島へ立ち寄って漁をおこなったと主張したが、渡海記録を分析すると、特別な場合を除いて竹島へ往復の船路途中で松島での漁はなかった。松島での漁業は竹島を基地にしておこなわれたのである。そのため、松島は「竹島近所の小島」などと竹島の属島と認識された。

ところで、それまで竹島への渡航は200石積みの大船が2隻であったが、松島(独島)での漁をおこなうなら2隻のうち1隻を80石程度の小船に代える必要がある。そうなるを持ち帰る漁獲物の積載量が減ってしまう。そのため、最初のうち大谷は松島でのアシカ猟を提案した村川に賛成しなかった。しかし、村川だけが松島漁業をおこなうと損することになるので、村川は大谷・村川両家の面倒を見ていた阿部四郎五郎を動かして大谷を説得した。こうして大谷も収入減を覚悟で松島での漁業をするようになった。阿倍はこのような事情をそれまでアワビを献上していた老中に知らせて了解を得た。これが「老中の内意」であるが、川上健三はこれをもとに松島渡海免許が発行されたと主張した。しかし、池内敏が主張するように「老中の内意」は決して渡海免許の存在を意味するものではなく、松島渡海免許はなかったと考えられる。

大谷・村川両家の漁業は、朝鮮人も鬱陵島へ出漁するようになって転機を迎えた。竹島(鬱陵島)の領有権をめぐる朝・日間で鬱陵島争界(竹島一件)が始まった。論争が平行線になったとの報告を受けるや幕府は竹島・松島の調査を始めた。その結果、竹島は朝鮮領であり、竹島の近所にある松島は鳥取藩にも日本のどの国にも属さないことを知った。したがって、幕府が1696年1月に竹島渡海禁止令を発した時に日本領でない松島も渡海が禁止されたのである。その後、200年近く松島での日本人の漁業は知られていないばかりか、松島へ上陸したという記録もない。したがって、17世紀に日本が独島の領有権を確立したという主張は成り立たない。

キーワード: 松島渡海免許、アシカ猟、大谷・村川、竹島一件、鬱陵島争界、竹島渡海禁止令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에 투고하여  
2013년 11월 30일까지 심사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 결정됨